

## 광주 민간공원 수사 공무원 4명 기소

검찰, 이용섭 시장 친동생도 재판에 넘겨 ... 수사 마무리  
이정삼 전 환경국장 구속·정중제 부시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9개월간 수사해온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과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용섭 시장과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에 대해선 범죄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3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인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을 구속기소했으며,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을 전 시장 공원녹지과 사무관 A씨, 이 시장 동생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원에 전수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 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작성)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다.  
정 부시장은 호반건설이 이의제기 공문을 제출한 2018년 11월 13일 당일 윤 감사위원에게 호반의 경쟁업체인 금호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특정검사 지시를 하면서 "시장님 뜻이다"라고 말했으며, 윤 위원장은 자신의 업무일지에 "금호산업의 서류를 집중 지적한 것에 비추어 탈락시키라는 의미로 이해됨"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탈락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실제 광주시는 1단계 민간공원 사업 때 탈락업체의 이의신청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2건 모두 승소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 부시장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특정검사에 착수, 금호산업 등에겐 과도한 지지를 한 반면 호반건설은 명백한 감점사항(-5)을 발견하고도 지적사항에서 제외했다. 또 공원녹지과측에 신

속하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한 뒤 회의상정 안건으로 '유사사업실적, 공원조성비용 항목을 (공원녹지과에서) 자체 평가하는 보고사항으로 임의 분류하고, 정작 회의 때는 보고 자체를 누락했다. 결국 공원조성비용 항목 등이 중앙 2지구 사업자 순위가 바뀌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 부시장은 특히 이례적으로 제안심사위원 회의에도 참석해 감사결과 등을 수용하지 않는 위원에게 "시에서 모두 책임지겠다. 직을 건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윤 위원장은 "정의의 문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3차 회의시엔 회의장 옆 방송실에서 위원들의 비공개 논의를 엿듣고, 논의에 따른 점수 시뮬레이션까지 지시했다.  
당시 광주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이었던 A씨는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복사해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 유동업체를 운영하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 B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민간공원 사업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 주겠다"며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업체는 호반측과의 계약으로 철근 납품권을 수주했으며, 수익은 통상(타 업체)의 4배에 이르고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건설 계열사 등에 대한 매출이었다. 업체는 김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은 특혜도 누렸다. 검찰은 다만 알선수재 혐의는 이익을 받은 자만 기소할 수 있어 B씨만 기소했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 특정검사에 착수해 일부 계약점수가 잘못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날 수사결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잘못된 평가 부분을 바로 잡는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라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2020년 사제·부제 서품 미사가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 여대 시립유니버시티드 체육관에서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품 식에는 8명이 사제품을, 9명이 부제품을 받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秋, 검찰인사 ...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조국·靑 수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박찬호 제주지검장 전보  
중앙지검장 이성운·검찰국장 조남관·반부패부장 심재철

광주고검장에 박성진

청와대의 선거개입·검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공적하던 광주고검장에는 박성진(사법연수원 24기·부산) 춘천지검장이 승진·배치됐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번 인사에선 전보 출신들이 전진 배치됐으며,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찰청 반부패감력부장, 박찬호(26기·광양)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물갈이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한동훈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의 빈 자리는 각각 심재철(27기·전북 완주·전주동암고) 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27기·순천·순천고) 수원지검 1차장이



박성진 광주고검장 이성운 중앙지검장 심재철 반부패부장

검사장으로 승진·배치됐다.  
이 외에도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 온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강남일(23기) 대검찰청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원석(27기·광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다.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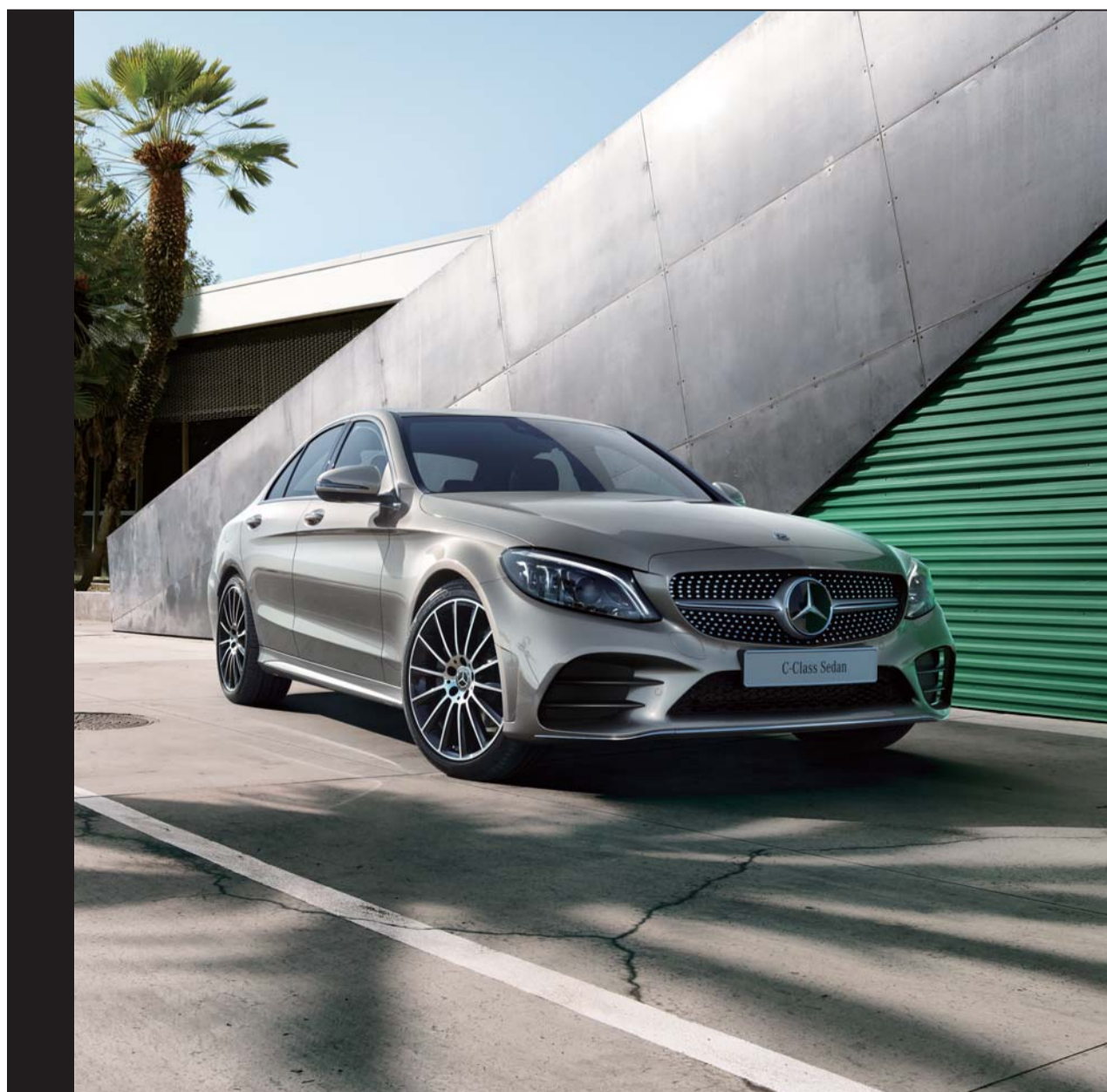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 원장을 맡게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성운(23기·전북 고창·전주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물려받게 됐다.  
법무부 주요 보직도 대규모 인사가 진행됐다. 특히 검찰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검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24기·전북 남원·전주고)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판사 출신인 이용구(23기) 법무실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란, 이라크 미군기지 미사일 보복 공격

미국 "모든 조치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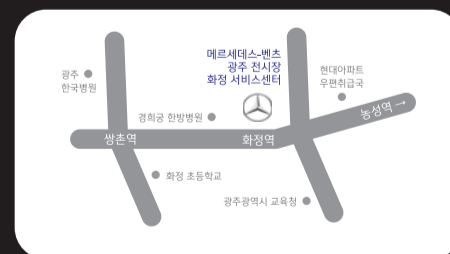
최근 미군의 공습으로 핵심 지휘관을 잃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닷새 만에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충돌이 물고 울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국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은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국내 항공·해운업계는 물론 석유화학기업이 밀집한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란 국영매체들과 외신들에 따르면 이

란 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새벽 1시 20분께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기지 등 미군이 주둔한 군사기지 최소 2곳에 탄도미사일 십수발을 쏘았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소 15발에서 최대 20여발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당초 백악관은 7일 밤(미국 동부시간)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국민 TV 연설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내일 아침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